



임용탁, 김진옥 선교사의 태국 선교 이야기

2023. 9. 11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인사드립니다.

1. 무모한 교회 개척

작년 저희는 안식월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첫 번째 텀을 지나면서 과연 이곳 태국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척박한 불교의 땅 태국에서 교회 개척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에 순종함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저희가 협력하던 교회의 태국 담임목사에게 저희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하니 이를 위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태국 담임목사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태국 땅에 교회 개척이 쉽지 않으니 자기 교회 교인들과 함께 분립개척 하는게 어떠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제안을 받은 저로서는 태국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목사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할 지역까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안했던 개척지역에 적당한 건물을 임대하여 올 1월부터 교회개척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임대한 건물은 렌트비가 저렴한 대신 기초 공사가 전혀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에 필요한 상, 하수도 공사와 전기 공사는 물론이고 모든 인테리어까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바로 앞둔 지난 5월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립개척을 앞두고 이제 현지 교회 성도들과 분립해야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되 분립개척이 아닌 저희 부부 두 사람 만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분립개척해서 현지 교회의 도움 받고 시작하면 안될까요?”* ππππ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네요~ 좀 쉽게 가면 안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 끝에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무모한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교회 목사님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분립개척을 정중하게 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개척 예배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된 교회 이름은 “크리스따짜 탕 콰쨙” 한국어로 해석하면 “진리의 길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은 멤버 한명 없이 저와 김진옥 선교사 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였지만, 이 예배는 이 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남아 있는 저희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왕이면 분립했으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은데요~”* 이런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있어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나 하와를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개척 후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정한 시간이 되어 저와 김진옥 선교사 등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두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직 성도가 오지 않음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 예배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아직 큰 부담이기에 저희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누군가 교회 뒷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국자매 3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그 자매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자매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치앙마이에 있는 국제 예수 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 중 한명이 이번에 교회 개척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 가서 섬기면 어떠겠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고 기도하던 중 이 자매들 역시 하나님 보내신 곳에 순종함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개척 두 달여 지난 지금은 장년 성도가 11명 아이들 3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 모습을 지켜본 큰 아들 성민이는 본인이 나가던 한인교회가 아닌 이곳 개척교회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민이가 교회에서 기타로 예배 찬양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선배 선교사님은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교회 안에 기숙사를 함께 해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시작해야되~” 하지만, 저희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기에 저희는 이에 도구로 쓰임받고 싶을 뿐입니다.



2. KPM 수련회

지난 6월 방콕에서 현재 저희가 몸담고 있는 선교 단체인 KPM(Korea Presbyterian Mission)에서 전체 선교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이신 정승희 선교사(태국 40여년 사역) 인도함으로 선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과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많은 지도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약 20여명의 선교사 가정의 함께 모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단기 선교팀 방문 (안산동산교회 대학부, 영어캠프 팀)



이번 여름 7월에는 귀한 손님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 팀은 코로나 전에도 방문했던 안산동산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대학부 지체들로 코로나 이후 첫 선교지 방문으로 다시한번 이곳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하였습니다. 9박 10일 동안 이번에 개척된 저희 교회 근방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 선교팀은 도시 선교뿐만 아니라, 람빵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 공동체를 방문하여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치앙라이에 있는 '창(코끼리)' 산에 있는 부족 마을과 교회를 방문하여 태국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 살펴보고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청년들을 통해 많은 도전과 배움을 얻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서는 저희로 하여금 많은 은혜와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간을 거쳐 오면서 그간 외롭게 홀로 싸워야 했던 저에게 이들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재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했던 안산동산교회 대학부 ‘살맛나는 동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방학을 맞이하여 치앙마이에서 3주간 영어캠프를 진행하는 집사님들(광주양림교회)과 학생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현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한국 예배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국 예배 시간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캠프를 위해 치앙마이에 있는 동안 지성과 영성훈련을 겸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4. 기도제목

- 1) 이번에 개척된 ‘진리의 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2) 저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태국인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 3) 교회 옆 건물에 전도를 위한 카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필요한 물품이 채워지게하소서~ (기존 카페에서 이전하면서 사역확장으로 인한추가 물품 필요) 카페에 필요한 그라인더 100만원, 제빵 교육위한 오븐 구입 200만원, 물탱크 및 펌프 100만원
- 4) 임용탁, 김진옥 선교사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 세워갈 수 있도록 언어의 탁월함을 더 하소서~
- 5)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특pecially 첫째 성민이가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배움의 터전으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임용탁 선교사 태국연락처 : 07080952356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340-040174 임용탁

카카오뱅크 3333-07-1928288 임용탁

* 교회 정기 후원 작성 :

옆 QR을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정기 후원으로 연결됩니다.

